

# 조선의 美 빛던 흔적 켜켜이... 옛 도공의 숨결을 듣다

**무등산을**  
**세계의 국립공원으로**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캠페인

28 대표 유물·유적 분청사기(터)

충효동일대, 조선 최고 분청사기 생산지  
오름가마 퇴적층, 도자기 변천사 그대로  
1998년 건립 금곡동 '분청사기 전시실'  
제작기법·실물·가마시설 등 재현 '인기'



광주시 북구 금곡동에 있는 분청사기 전시실 전경. 1만1828㎡에 부지에 가마보호각과 전시동 등을 갖추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무등산 주변은 광주·전남지역민과 함께 해온 오랜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유적과 유물이 분포돼 있다. 특히 광주시 북구 충효동을 중심으로 분포된 분청사기와 백자 가마터는 무등산의 대표적인 유적·유물로 꼽힌다. 무등산 자락을 터전으로 조선의 미(美)를 태동시킨 옛 도공들의 흔적을 더듬어 본다.

◇조선의 미 '분청사기' = 광주시 북구 충효동 일대는 15세기부터 16세기 초까지 조선 최고의 분청사기 생산지였다. 특히 충효동 가마터의 분청사기는 조선시대 대표 공예로 꼽힐 정도로 그 품질이 우수하다. 충효동 가마는 바닥에 모래를 깔고 갑발(점토로 만든 원기둥형 그릇)이나 도자미(받침)를 깔아 수평을 유지한 반지하식의 오름가마다. 퇴적층은 가장 아래층에서 인화분청부터 귀얄분청 그리고 맨 위층에서 백자가 출토됨에 따라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변천해 가는 과정을 알려주고 있다.

무등산 가마터가 새롭게 알려지게 된 것은 지난 1963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충효동에서 퇴적층과 도자기 파편을 조사하면서다. 이후 1991년 국립광주박물관이 본격적인 발굴조사에 나서면서 가마터 등이 발굴됐다. 당시 발굴조사에서는 다른 곳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도공의 이름이 새겨진 것과 생산된 가마 이름을 밝힌 명문들이 발견돼 화제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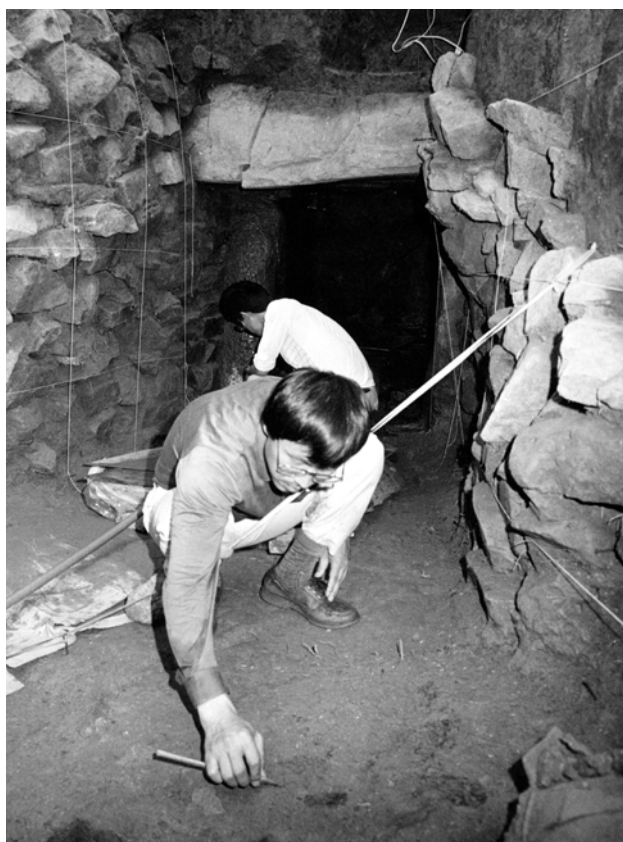
또, 퇴적층에서 발견된 20여종에 이르는 다양한 명문 자기를 통해 분청사기 제작이나 납품 관서명, 제작시기가 밝혀지기도 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어촌'이라는 한글이 새겨진 분청사기 마상배(馬上杯·말 위에서 사용하는 술잔)가 출토돼 당시 한글 사용의 실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무등산 가마터의 분청사기는 우아하고 섬세한 고려 자기의 귀족적 취향 대신 건실하고 소박한데다 용도에 충실한 민중적인 아름다움으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고 있다. 무등산 가마터는 고려의 국운이 다할 즈음 비색 청자를 만들던 도공 중 일부가 무등산 자락에 모여 새롭게 만든 가마터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청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자기를 개발하는 데 열중했고, 그 결과물이 조선의 미로 대표되는 분청사기다.

청자가 태토(胎土)의 고운 입자만을 사용한 반면 분청사기는 태토를 그대로 쓴 게 특징이다. 표면이 청자보다 거칠 수밖에 없었고, 이를 감추기 위해 태토 위에 분토를 입혀 분장한 뒤 유약을 씌워 구워냈다. 분청사기를 분장회청사기(粉粧灰青沙器)로 부르는 이유다.



'어촌' 글씨가 새겨져 있는 마상배.



1991년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무등산 가마터 발굴 모습.

이를 반영하듯 무등산 가마터는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돼 있을 만큼 옛부터 유명했다. 일제 강점기에도 무등산 가마, 광주 가마, 석곡면 가마 등으로 이름을 알렸다.

◇도자기 변천사를 한눈에 = 광주시는 1998년 12월 금곡동 부지 1만1828㎡에 가마보호각과 전시동을 갖춘 분청사기 전시실을 건립했다.

전시실은 조선 초기인 15~16세기에 무등산 주변에서 생산됐던 도자기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자기 제작기법(상감, 인화, 박지, 조화, 귀얄)과 실물, 전시보드를 진열해 놨다. 특히 가마시설을 재현한 미니어촌은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다.

가마보호각에는 이곳에서 발굴 조사된 4개의 가마터 중 상태가 가장 양호한 2호 가마터가 보존돼 있다. 반지하식의 단실 오름가마로 아궁이부터 굴뚝까지 완벽한 상태로 발굴돼 도자기 가마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길이 20.6cm, 바닥 폭 80cm~115cm, 경사도 13도, 출입구 6개로 이뤄져 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이다.

◇무등산 가마터 흔적들 = 무등산 가마터인 분청사기 전시실 주변은 사적 제141호로 지정돼 있으며, 배재마을과 금곡저수지, 금곡마을 뒤, 버성골 등이 포함돼 있다.

금곡동 산 637번지에 있는 '배재마을 가마터'는 충장사에서 원효사 방향으로 500m 정도 가면 급한 곡선길이 나오는데, 동쪽에 있는 개간된 밭이 바로 가마터로 현재는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이곳에서는 분청사기 발생기인 고려말~조선 초에 만들어진 대접과 접시 등이 많이 출토됐다.

금곡동 산 129번지에 있는 '금곡저수지 가마터'는 금곡마을에서 농로를 따라 서쪽 방향으로 1km 정도 가면 만날 수 있다.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대접과 접시류이며, 태토비집 받침으로 구워낸 그릇이 많다.

'금곡마을 앞 가마터'는 분청사기 전시실 진입로 길 건너편에 남서-북동 방향으로 들어서 있고, 발육에 단면 일부가 드러나 있다. 대접과 접시, 병, 매병 등이 출토됐다.

'금곡마을 뒤 가마터'는 금곡동 373-1번지로, 금곡마을 북쪽 아산에서 도자기 파편과 갑발편, 가마벽편, 도자미 등이 발견됐다. 충효동 버성골 가마터는 북구 충효동 90번지로, 평촌 경로당 뒤쪽에 있다. 인근 밭과 밭둑에서 자기편과 가마벽편과 함께 접시와 대접, 병과 매병이 출토됐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무등산 갤러리 고(故) 박상섭 작 '무등의 조흔' (1999년)  
Oil on Canvas(71 x 91cm)



"시를 쓰듯, 소설을 쓰듯, 색을 가지고 자연을 노래하고 싶을 뿐이다."

고 박상섭 화백은 무등산 풍경을 향토적인 색채로 표현, '무등산 화가'로 불렸다. 50대 중반에는 아예 무등산으로 들어가 살면서 무등산을 그렸다. 그의 '무등 사계' 연작은 노랑과 연초록색, 분홍색이 넘실대는 봄 풍경부터 눈이 시릴 만큼 질푸른 녹색의 여름산, 감청색과 황토색의 색 잔치가 일품인 가을 원효 계곡, 화색 하는 아래 상서롭게 일어난 서서대의 설경 등을 함께 그린 것이 특징이다.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성역 | 광송리도로

북고당 한약방

세우린 병행  
한약파이프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